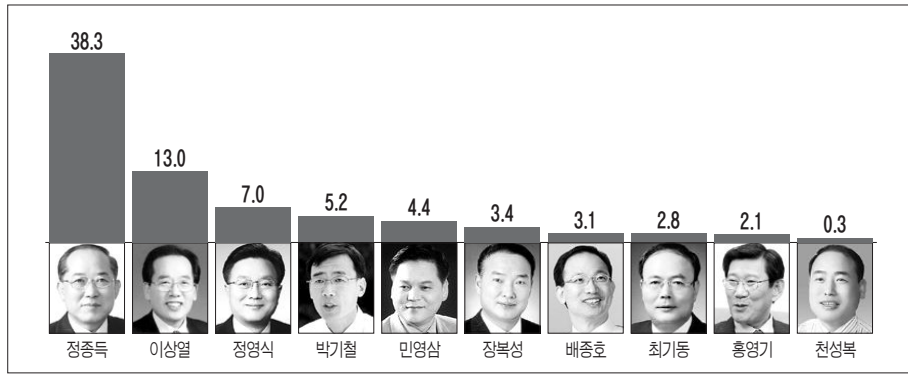


# 2010 지방선거 여론조사 <전남 기초단체장>

단위: %



## 정종득 독주속 이상열·정영식 도전

### 목포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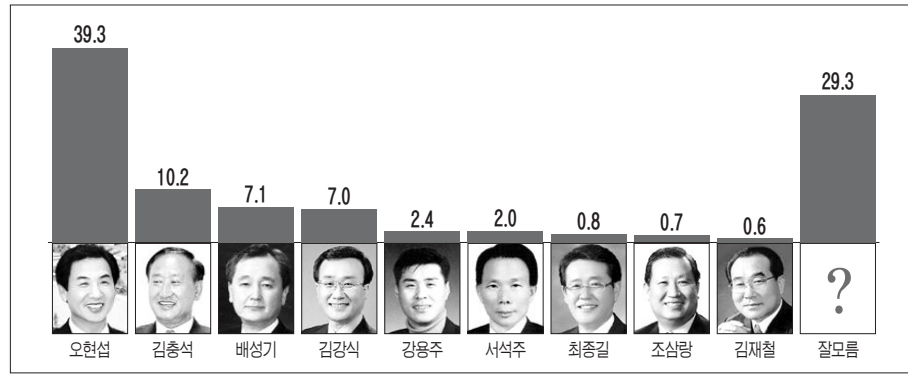
정종득 현 목포시장의 '3선' 도전에 9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 만큼 '현직 프리미엄'을 갖고 있는 정 시장의 독주 속에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.

이번 조사에서 정 시장은 38.3%의 지지율로 멀찌감치 앞서고 있다. 이상열 전 국회의원이 13.0%로 뒤를 쫓고 있다. 이어 정영식 전 행정부차관(7.0%), 박기철 민노당 후보

시장 위원장(5.2%), 민영삼 전 민주당 대변인(4.4%) 순이었다.

올 1월 본보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 시장의 지지율은 5%가량 지지율이 높아졌으며, 당시 3위로 처졌던 이 전 의원이 정 전 차관을 누르고 2위로 순위 바꿈을 했다.

정 시장은 성별·연령·학업·직업·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, 자영업 종사자(56.9%)에게서 특히 높았다.



## 오현섭 39.3%... 김충석·배성기 추격

### 여수시장

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오현섭 현 여수시장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오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39.3%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, 지난 1월 여론조사 때보다 10.3% 포인트가 더 상승하면서 도전자들을 멀찌멀찌 따돌렸다.

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10.2%로 2위, 배성기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7.1%로 3위를 차지했다. 지난 선

거에서 오 시장과 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김강식 남해안발전연구소 이사장은 7.0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이어 강용주 여수시의원이 2.4%, 서석주 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이 2.0%의 지지율을 보였다. 최종길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 이사장(0.8%), 조삼량 삼해실업대표(0.7%), 김재철 여수재향군인회장 0.6% 등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. 부동층은 29.3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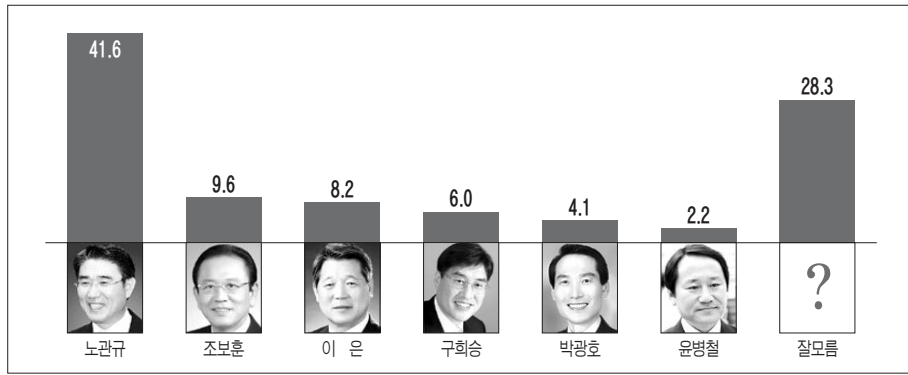
# 현직 탄탄한 지지

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지지 기반까지 갖춘 현직 단체장들의 강세가 뚜렷했다.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이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. 이런 추세는 지난번(12월28일) 조사에서 보다 더 강화됐다.

강진·완도·영광·신안의 경우 현직 단체장들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0%를 넘어서는 등 다른 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여주고 있다.

강진 황주홍 현 군수는 58.6%의 지지율을 기록, 광주·전남 기초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3선 고지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도 김종식 현 군수도 57.1%의 높은 지지율로 세 과시에 나선 다른 후보들을 현저히 앞서고 있다.

광주·전남지역은 민주당 공천만 반면 정치 신인이라도 당 지지도를 업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, 민주당 공천이 일종의 '보증서'처럼 여겨지는 듯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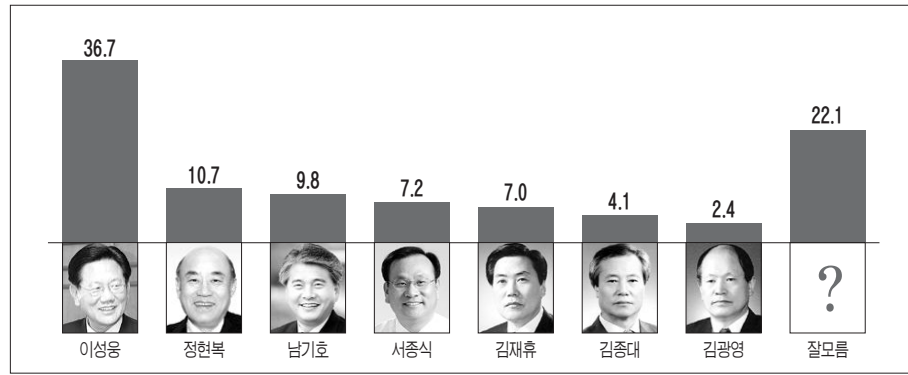


## 노관규 41.6% 압도적... 조보훈·이은 뒤이어

### 순천시장

2013순천국제제철박람회 유치 등 순천만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관규 현 순천시장이 41.6%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. 노 시장은 성·연령·학력·직업·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으며, 특히 지난 1월1일 실시된 본보 여론조사

보다 7.8% 포인트가 더 올랐다. 조보훈 전남도 전 정무부지사가 9.6%로 뒤를 이었으며, 노 시장의 재선을 저지하겠다며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민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8.2%를 기록했다. 판사 출신 구희순 변호사가 6.0%를 차지했으며 박영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4.1%, 윤병철 순천시의회원이 2.2%를 기록하는 등 지역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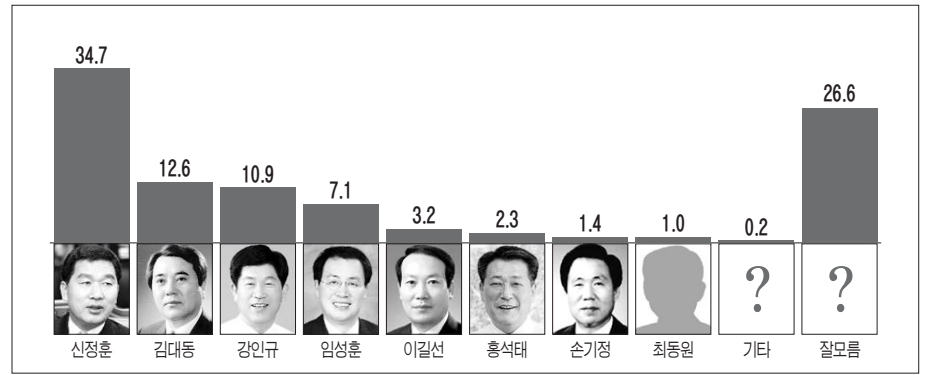


## 이성용 지지율 1월보다 14.5%P 더 올라

### 광양시장

이성용 현 광양시장의 3선 도전이 관전포인트다. 이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조직, 무난한 시장 운영 등에 힘입어 36.7%의 지지율을 기록,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. 이 시장의 지지율은 지난 연말 여론조사 때보다 14.5% 포인트가 더 높아졌다. 이에 맞서 도전장을 던진 정현복 전 광양부

시장은 10.7%, 남기호 전남도 의원은 9.8%로 뒤를 이었다. 또, 서종식 변호사가 7.2%, 김재후 전 광양만경제청 투자정책부장이 7.0%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권 후보들을 맹추격하고 있다. 이어 김중대 광양시민포럼대표 4.1%, 김광영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2.4% 순으로 나타났다. 이 시장은 성·연령·학력·직업·소득 등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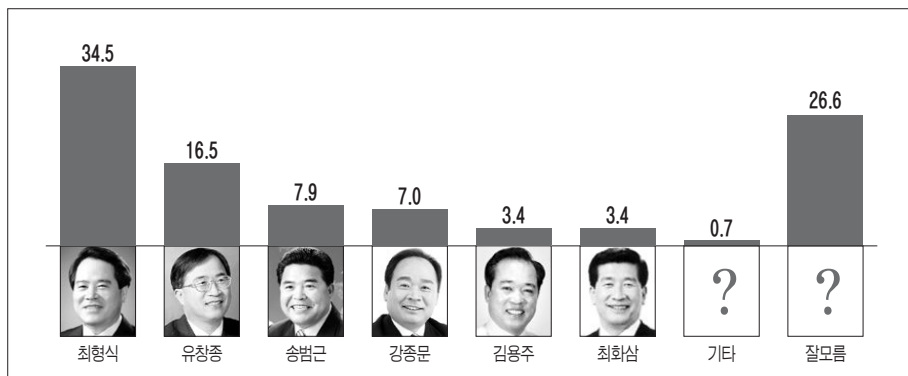


## 직무정지 신정훈 34.7% 1위... 건재 과시

### 나주시장

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신정훈 나주시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. 이번 조사에서 신시장은 34.7% 높은 지지율로 1위를 고수했다. 2위를 차지한 김대동 전 나주시장(12.6%)을 크게 앞서며 높은 지지율로 견제함을 과시했다. 이어 강인규 나주시의장(10.9%), 임성훈

전 경기도벤처협회장(7.1%), 이길선 전 나주시의장(3.2%), 홍성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(2.3%), 손기정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(1.4%) 순이었다. 그러나 신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거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선거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.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도 26.6%나 달하고 있는데 신시장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.



## '무주공산' 자리 최형식-유창중 양강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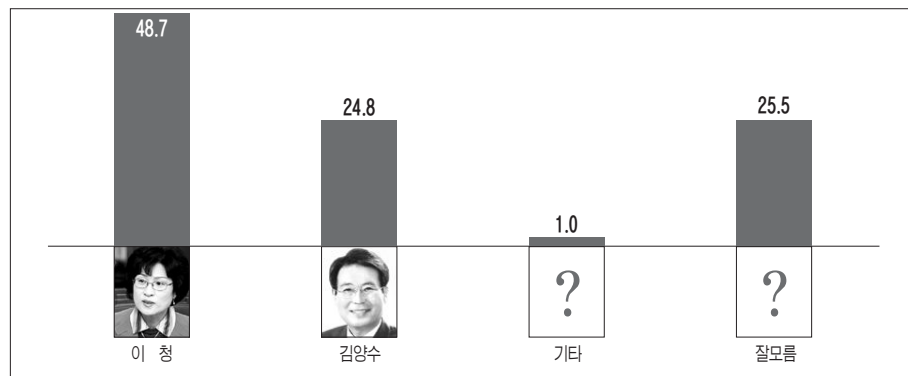
### 담양군수

이정섭 전 군수의 도중하차로 '무주공산(無主空山)'이 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 불리기 경쟁에서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지지기반을 확대하면서 앞서나가고 있는 형국이다. 최 전 군수는 응답자의 34.5%가 지지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. 유창중 전 담양 부군수가 16.5%로 추격하고

있으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. 두 후보 모두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.

지난 여론조사에 비해 최 전 군수의 지지율(32.7%→34.5%)은 다소 올라간 반면, 유 전 부군수는 21.7%에서 16.5%로 떨어졌다.

송범근 전남도의회원은 7.9%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강종문 전남도의원 7.0%, 김용주 전 담양군청 경제과장 3.4%, 최희삼 담양군의원 3.4% 순이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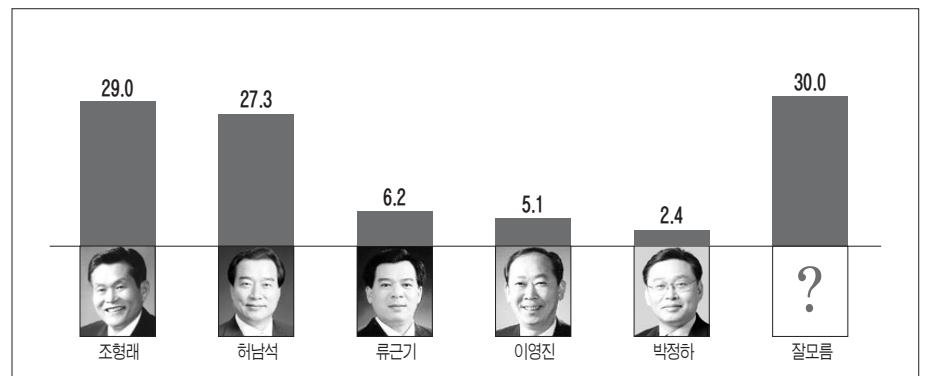
## 무소속 이청-민주 김양수 한판 대결

### 장성군수

민주당의 '덧발'에도 불구하고, 무소속인 이청 현 군수가 재선 고지로 끝났음에도 앞서고 있다.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으로, 지난 2008년 재·보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48.7%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. 김양수 전 전남공무원연수원장이 24.8%로 뒤쫓고 있다.

이 전 군수는 19~29세(59.7%), 50대(58.1%)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김 전 연수원장은 30대(32.1%)의 지지율이 높았다.

김 전 연수원장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가 단일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 군수와 김 전 원장이 불만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. 지난 재·보선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만큼 이 군수의 수성이나 김 전 원장의 명예 회복이냐도 관심거리다.



## 조형래 현군수-무소속 허남석 오차범위 점진

### 곡성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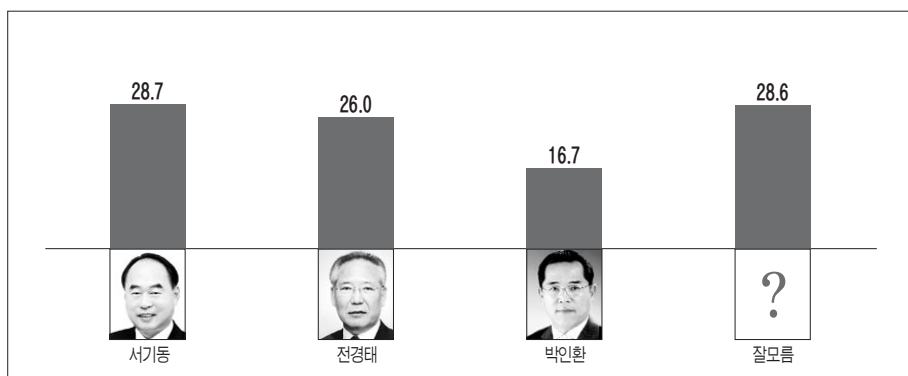
조형래 현 군수가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,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의 상승세가 무섭다. 조 군수가 29.0%로 1위다. 하지만 허 전 시장이 27.3%를 얻어 오차범위(±5.66%) 범위까지 추격했다.

조 군수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 될 경우 본선에서 무소속인 허 전 시장과 불만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.

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.

조 군수는 19~29세(32.7%), 60대 이상(34.4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반면, 허 전 시장은 40대(37.5%), 50대(39.7%), 하이트칼라 종사자(51.4%)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.

류근기 전 전남도의원 6.2%, 이영진 전 곡성군의회 의장 5.1%, 박정하 곡성신민 대표 2.4% 순이었다. 부동층은 30.0%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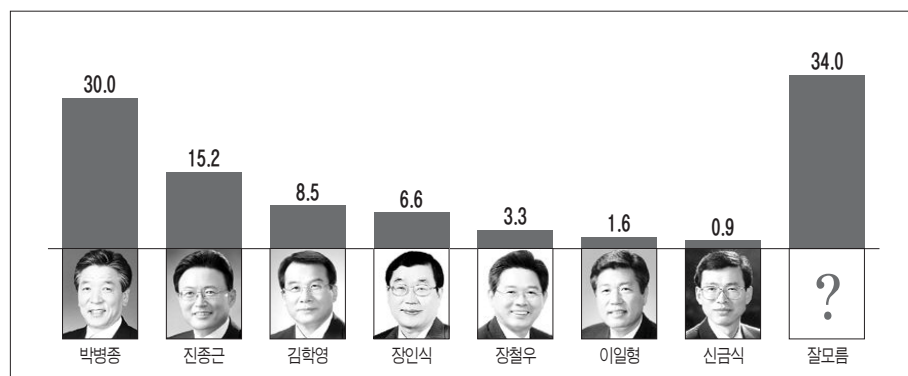
## 서기동 현 군수에 전경태 전 군수 맹추격

### 구례군수

예측을 불허하는 3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. 현재로서는 재선을 노리는 서기동 현 구례군수가 28.7%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, 전경태 전 구례군수가 26.0%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다.

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도 16.7%의 지지율로 선두권을 바짝 뒤쫓고 있다.

이들은 모두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.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당내 경선에서 불꽃튀는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. 서 군수는 19~20세(39.6%), 대학재학 이상(39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 전 전 군수는 30대(38.9%), 고졸(40.9%), 자영업 종사자(46.5%),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~349만원(46.5%)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. 부동층은 28.6%였다.



## 박병중 선두속 부동층 향배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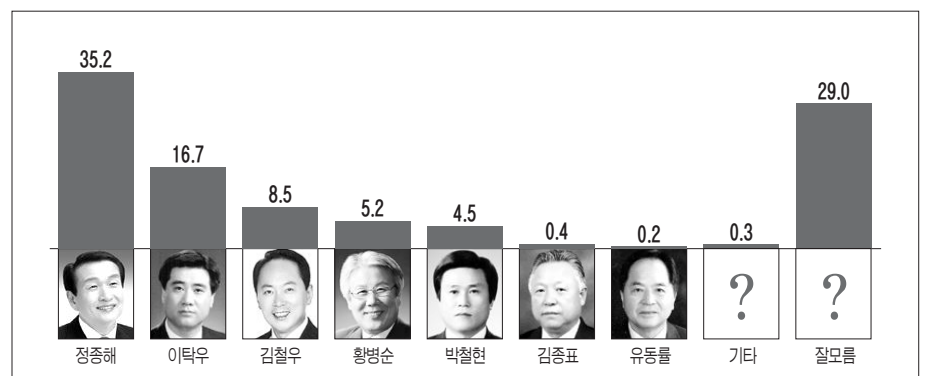
### 고흥군수

박병중 현 군수가 30.0%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으며, 진종근 전 고흥군수가 15.2%로 추격하는 판세다.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(34.0%)의 향배가 주목된다.

박 군수는 모든 계층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, 30대(46.1%)와 고졸(46.

9%),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~249만원(50.4%) 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. 진 전 군수는 남성(19.3%)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이어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이 8.5%, 장인식 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6.5%, 장철우 변호사가 3.3%를 차지했다. 이일형 전남도의원(1.6%)과 신근식 고흥타임스대표이사(0.9%)도 민심을 다지고 있다.



## 정종해 민주 재공천 받을지 관심

### 보성군수

보성은 재선 도전에 나선 정종해 현 군수의 민주당 재공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정 군수는 35.2%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으며,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도 7.7% 포인트가 올랐다. 정 군수는 50대(47.2%)에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. 이탁우 전남도 의원은 16.7%로 1위인 정 군

수를 압박하고 있다. 이 의원은 남성(22.6%)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 다음으로는 김철우 보성군의회 의장이 8.5%, 도의원으로 출마의사를 굳힌 황병순 전남도의회원이 5.2%, 박철현 전 광주시 도시공사사장이 4.5%의 지지율을 각각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. 김종표 성군관유도회 전남본부회장(0.4%)과 유동률 전 전남약사회장(0.2%)도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.